

파견기간	2023.09.18- 2024.02.10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파견국가	체코		소 속	
파견대학	Charles University		성 명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의 경계를 넓히고자 교환학생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고학년이 되며 전공과 진로에 있어 고민이 많아졌고 새로운 경험 없이는 같은 고민을 반복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머물렀던 곳과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지 궁금했기 때문에 교환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환학생 경험을 추천하는 이유가 궁금했기 때문에, 대학 입학 전부터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꼭 신청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체코는 유럽의 중심 부근에 위치해 있어 유럽 내 여러 국가로 이동하기 편합니다. 교환 기간 중 여러 국가를 방문하고 싶었기 때문에 유럽 중심에 있는 오스트리아와 체코 중 파견 지역을 고민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빈은 빈 필하모닉 등 문화예술이 발달한 국가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높은 수준의 예술적 경험을 위해 빈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체코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친구의 조언으로 체코의 프라하를 선택했습니다.

프라하에서도 오페라나 발레 등의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물가가 빈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생활 면에서 더욱 만족스럽다는 조언이었습니다.

프라하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해 본 결과, 다시 파견지역을 선택하더라도 프라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렴한 물가 덕분에 같은 예산으로도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도 교통비 부담이 적었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했지만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는 점이 의외로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교환학생을 신청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영어 실력이 부족한 편이었는데,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이 많아 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영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 매우 빠른 속도와 큰 배려 없는 영어 사용에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영어 실력의 향상이 중요하다면 체코는 추천하기 어려운 유럽 국가 중 하나지만, 비영어권 학생으로 서로 배려하고 배려 받는 부분이 많아 적응하기 편했습니다.

교환의 목적이 영어 실력 향상이 아닌 다방면의 경험이었기에 체코를 파견 지역으로 선택한 것에 만족합니다.

파견대학은 타전공의 학생을 받아주는 대학으로 선택했습니다. 저의 본 전공은 디자인과로, 미술대학 파견이 아닌 본부 파견을 선택했을 때 디자인 전공으로 파견이 가능한 대학이 거의 없

었습니다. 게다가 본 전공과 다른 전공으로 신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학교가 많았습니다. 타전공의 학생을 받아주는 Charles University의 Humanities학부로 파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파견대학/지역 특징

파견대학인 Charles University는 체코의 명문대로, 한국에서도 많은 수의 교환학생이 파견됩니다. 체코의 다른 대학에 비해 비교적 정보 얻기가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라하 곳곳에 캠퍼스가 지어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부 건물은 구시가지의 중심부에 있어 프라하의 아름다운 건축물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파견된 학부는 프라하의 중심부에서 대중교통으로 40분 정도 떨어진 신식 건물로, 다른 학부의 수업 연강이 있는 날에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대중교통을 타고 환승을 해야 했습니다. 구글 맵에 대학명과 학부명을 붙여 검색하면 캠퍼스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과 학부/학과의 분류 기준이 달라, 원하는 전공의 소속 학부를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타 유럽 학교의 경우 Faculty of Arts가 인문대학으로 여겨지는데, 카렐대학교는 Faculty of Humanities가 따로 있습니다. 파견을 원하는 전공이 보이지 않는다면, 서울대학교처럼 각 학부마다 개별 사이트가 있으므로 여러 학부의 학과 및 강의 내용을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 Charles University에 미술대학은 없었지만 Faculty of Education에서 사진술, 일러스트레이션, 도예 등의 미술대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강신청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하지 못했지만 저처럼 미술대학에서 어쩔 수 없이 타전공으로 파견 신청하는 경우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국가에 교환간 학생들도 프라하를 추천 여행지로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라하는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로, 도시 내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매력적인 구시가지와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여행으로 방문할 때는 2박도 충분하다는 후기도 있지만, 매일매일이 색다르게 예쁜 도시입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신청 절차

체코의 비자 신청 절차는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비자 신청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상황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대학의 입학 허가서 원본이 필요하고, 입학 허가서 발급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미루지 않고 미리미리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자 신청 인원이 몰리게 되면 출국 날짜까지 비자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견교 노미네이션이 완료되고 나면 3월 초에 어플리케이션 관련 안내가 오는데,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Letter of purpose**
2. **Letter of recommendation by a home faculty member**
3. **Transcript of records**
4. **CV**

5. **Certificate of English proficiency on B2 Level**
6. **Copy of passport**

다른 대학과 다르게 지도교수님의 추천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연락드려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서류를 모두 준비해 메일에 링크된 어플리케이션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게 되면, 약 1-2개월 뒤에 입학허가서 원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추천서를 받는 것에 시간이 오래 걸려 3월 말에 어플리케이션을 완료했고, 4월 말에 입학허가서와 기숙사 신청 서류를 메일로 받았 습니다. 이후 우편을 통해 5월 초에 입학허가서와 기숙사 서류 원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Faculty of Humanities의 경우 특급 국제우편인 DHL로 우편을 무료 발송해주어 입학허가서 메일을 받은 이후 원본 서류를 빠르게 한국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단 다른 학부는 우편 비 용이 유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학허가서 원본을 받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비자 면접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의 체코 대사 관 이메일로 비자 면접 신청 양식을 작성해 보내면, 며칠 뒤 면접 일자가 확정됩니다. 비자 면 접일은 신청인이 정할 수 없어 면접일을 더 늦은 날짜로 변경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야 합니다. 제가 신청했을 때 면접일자는 면접 신청일로부터 9일 뒤였습니다.

비자 면접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신청서
- 2.여권 사진 2 장
- 3.여권
- 4.경제적 지불책 입증 서류
- 5.거주목적 입증 서류
- 6.거주지 입증 서류
- 7.범죄 경력 회보서와 아포스티유 원본 & 번역본
- 8.해외 여행자 보험증 (비자 수령시 제출해도 무관함)

신청서는 자필로 수정 없이 작성해야 하며, 범죄 경력 회보서와 아포스티유를 발급받고 번역을 받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면접 신청 이후 바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제적 지불책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한화 600 만원이 들어있는 통장과 통장에 연결된 실물 카드, 통장잔고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액 마련과 카드 발급은 비자 신청 이전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 면접일에 안국역에 위치한 체코 대사관에서 서류를 올바르게 준비해 제출하고 간단한 면접에 답하면 1-2 개월 뒤에 비자 수령안내를 메일로 받게 됩니다.

저는 서류 준비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어 면접일을 다시 잡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시기라 빠르게 재면접일이 잡혔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니 무조건 미리미리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수령안내를 받은 이후 비자 수령일도 메일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사관과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 수령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비자 수령 전에 가입해서 수령 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비자 수령을 위해서는 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최소 보장 금액이 정해져 있어 보험 비용으로 56 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자 수령 시에도 해외결제 가능한 카드로 3100 코루나(약 20 만원)를 결제하게 됩니다. 체코 교환을 준비하실 때에는 비자 수령에 필요한 각종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월 초에 어플리케이션 안내를 받고, 서류 준비와 각종 신청 절차를 마무리해 6 월 말에 비자를 수령했습니다.

교환신청부터 비자 수령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복잡한 만큼, 몇 단계에서 늦어지면 마음이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Charles University는 자체 기숙사가 프라하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Faculty of Humanities에 지원하게 되신다면 높은 확률로 프라하 8구 Faculty of Humanities 건물 옆에 붙어 있는 17.listopadu 라는 기숙사 건물에 배정받게 될 것 같습니다. 기숙사 신청은 어플리케이션 사이트에서 신청 여부를 클릭하게 되는데, 배정은 학부를 고려한 랜덤 배정으로 보입니다.

역사와 전통이 오래된 대학교인 만큼 기숙사가 오래 전에 지어져 대부분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프라하 중심부에 거주하면서 신식 시설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사설 기숙사를 알아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설 기숙사는 대학 기숙사에 비해 훨씬 비싸기 때문에 저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https://cuni.cz/uken-365.html>

Charles University의 기숙사 목록은 학교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기숙사를 학생이 직접 고를 수 없고, 어플리케이션 단계에서 기숙사 신청 유무만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정되는 기숙사 종류는 입학허가서를 받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기숙사 보증금은 출국 전 해외송금을 통해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기숙사 종류와 관계없이 5900코루나 약 36만원 정도로, 첫 달 기숙사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첫 달 기숙사비를 지불하고 남은 보증금은 퇴거 시 돌려받게 되는데, 저는 기숙사 열쇠를 잃어버려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기숙사 열쇠를 잃어버리면 2500코루나 약 15만원을 지불해야 하니 열쇠를 꼭!!!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기숙사 층 수 및 방 번호는 기숙사에 도착한 날 배정받게 됩니다.

제가 배정받은 기숙사는 프라하 8구 Faculty of Humanities 건물 옆에 붙어 있는 17.listopadu입니다.

중심지와 대중교통으로 40분가량 떨어져 있고, 근처에 도로 외 다른 시설이 없어 장을 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필수로 이용해야 합니다.

기숙사 건물은 A동과 B동이 있는데, B동 건물에 특정 시간마다 열리는 작은 편의점이 있습니다. 간단한 간식 정도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건물은 매우 넓은 편이지만 한 달 기숙사비 28만원 정도로 저렴합니다. 방 하나의 크기는 서울대학교의 구관 기숙사 호실보다 훨씬 넓고 창문이 큼니다. 2인 1실 두 개가 하나의 주방과 샤워실, 화장실을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기숙사 비용: 보증금 5900코루나, 월세 약 4700코루나(기숙사별 상이)

일반 학생증 발급 무료, ISIC학생증 발급 시 320코루나

체육, 외국어 등 일부 비정규 수업의 경우 수업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으나, 인문학부의 교환학생 수강 가능 수업 중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파견 대학 지불 비용 외 비자 발급시 필요한 비용으로는

비자 신청 필수 보험 비용 약 9300코루나

비자 발급 비용 3100코루나

범죄경력회보서+아포스티유 번역 비용 4만원

총 80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숙사 보증금도 출국 전 지불해야하므로, 출국 전에 필요한 비용이 큰 점 참고해주세요.

4. 기타 유용한 정보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Charles University의 수강신청은 학생 시스템 사이트인 SIS를 통해 진행하나, 제가 파견된 Faculty of Humanities는 교환학생들의 수강신청을 코디네이터 선생님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수강신청 전에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 교환학생이 수강 가능한 Faculty of Humanities의 과목 엑셀을 메일로 전송해주시고, 따로 전달받은 링크에서 과목을 선택해 제출하게 됩니다. 강의 세부사항은 SIS에서 과목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진행 요일 등은 엑셀 파일에 적혀 있는 것이 더 정확했습니다. 수강신청 링크 제출 마감 기한은 며칠 간 넉넉하게 주십니다. 선수강이 필요한 과목이나 요일이 겹치는 과목, 현지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아 증원에도 자리가 부족한 과목이 아닌 경우 대부분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교환학생 신청이 거절되었다고 공지된 과목은 전체 과목 중 3과목 정도였습니다.

Faculty of Humanities의 수강신청은 매우 쉬운 편입니다. 다른 학부의 수강신청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본 학부 수강신청 기간이 타 학부 학생의 수강신청 기간보다 이르게 정해져 있어 본 학부 수강신청은 비교적 수월한 것 같습니다.

만약 타 학부 강의를 수강신청하고 싶다면 해당 학부의 타학부생 수강신청기간을 확인한 후, 해당 일자에 SIS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착순 신청에 실패하더라도 교수님께 정중하게 메일을 드리면 정원 외 수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이트에 기재된 메일로 문의 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강변경 기간에도 SIS를 이용하며, 사이트의 메뉴들이 낡고 조잡해 보이지만 직관적이어서 국제교류처의 안내를 통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Faculty of Humanities의 경우 신청 학점의 절반 이상을 본학부의 강의로 채워야 합니다. 저는 타 학부 1강의 본 학부 4강의로 20ECTS를 수강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업은 학생 학습 사이트인 moodle에서 주차별 공지사항과 과제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이후 학생 메일을 통해 사이트 링크를 받게 됩니다.

Media Sociology 6ECTS

사회과학부의 미디어사회학 강의로, 매주 미디어 사회학에서 논의된 패러다임과 주요 학자들, 논문을 공부합니다. 매주 읽어야 할 논문이 30페이지 가량이며 매주 제시된 논문에 1페이지의 비평문을 작성해야 합니다. 외에도 2페이지의 독후감, 7페이지의 기말 소논문 과제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과제량이 다른 수업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과제가 많고 내용이 복잡하지만 다양한 미디어 관련 주제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석사 수업이지만 해당 분야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비평에 높은 수준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과제의 분량이 상당히 많고 논문 읽기가 필수여서 부담스러운 수업이었지만 영문으로 설득하는 글을 작성하는 연습이 되었습니다. 또 수업에서 한국이 언급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비록 높은 노동 시간과 낮은 노동자 권리를 가진 국가라는 씁쓸한 모습으로 언급되었지만, 외부의 시선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경험이 색달랐습니다.

Iconology: Art-historical and Philosophical Aspects of Reading the Cultural Phenomena 3ECTS

인문학부의 도상해석학 강의로, 과제와 시험 없이 출석 100%의 수업입니다. 포르노와 예술의 경계라는 자극적인 주제로 시작하여 예술에 대한 철학적 해석을 배웠습니다. 철학 관련 내용이 자주 등장해 내용 자체는 어려웠지만 과제나 시험에 대한 부담이 없어 즐겁게 들었습니다. 학기 초 포르노에 대한 토론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할 주제임에도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깊었습니다. 특히 여성 신체 위주의 포르노 이미지에 대해서 동성애자 남학생과 이성애자 여학생이 "해당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포르노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Czech Literature in Translation Seminar 4ECTS

출석 점수와 2번의 에세이 과제가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모든 공지와 성적 입력 등을 약속하신 것보다 2-3주씩 늦게 하시는 편입니다. 체코의 교환학생으로서 들은 수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입니다. 체코의 문학을 통해 대략적인 체코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주요 작가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수업 전 그 주에 해당하는 문학 작품을 읽고 자유롭게 토론하게 되는데, 각기 다른 국가의 학생들이 비슷한 감상을 남길 때마다 문학 예술이 가진 힘을 느꼈습니다. 또 체코의 문화적 풍습 등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어 체코, 프라하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Introduction to Anthropology of Arts 3ECTS

예술인류학 개론 수업입니다. 인류학과 구분되는 예술인류학이라는 학문의 접근방법과 주요 이론, 역사 등을 배우게 됩니다. 주관식 서술형 기말 시험 한 번, 출석과 과제는 없습니다. 교수님께서 대본을 읽는 역양으로 매우 빠르게 말씀하시고 학문적 단어를 자주 사용하셔서 영어

듣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업을 통해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알게 되었습니다.

Animation design with Moviestorm 3ECTS

Moviestorm이라는 오래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90초 이상의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수업입니다. 프로그램이 오래되었고 맥북에서는 작동하지 않지만, 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하므로 학교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11월 말부터 주말을 포함해 금토일금 4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3d프로그램과 다르게 조작 방법이 쉽고 심즈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으로, 수업 중에 과제물을 제작해서 만드는 방식이라 수업 시간 중에 과제를 완성하면 추가적인 과제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관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삽입했는데, 노래를 재생할 때마다 교실의 모든 학생들이 흥얼거렸던 것이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3. 학습 방법

기숙사에서 집중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 카페나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프라하 내에는 공부하거나 노트북을 하기 좋은 카페가 여러 곳 있습니다. 추천하는 카페는 예약제 카페인 CafeDu와 구시가지 천문시계 근처에 있는 Scout institute 입니다. 프라하는 인기 있는 관광지이며 유럽의 중심에 있는 만큼,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도서관은 1일 입장권이 유료인 프라하 국립도서관 열람실입니다. 천 원 정도를 내면 입장권을 살 수 있고, 높은 천장과 큰 창문을 가진 아름다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꼭 판타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모습의 도서관이라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관광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저는 체코어 수업을 따로 듣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배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하 중심부의 식당 점원분들은 영어가 유창한 편이지만, 나이대가 있는 분들의 경우 체코어만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dobry den (도브리 덴)= 안녕하세요

dekuji (데꾸이) = 감사합니다

prosim (프로심)= 청유형 만능단어

프로심, 이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며 손동작으로 행동을 지시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카드는 카르또 라고 발음하시는데, 매장에서 카르또와 프로심만 알면 결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붐비는 거리에서 길을 비켜달라고 할 때 '실례합니다'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간단한 회화를 언어 어플 듀오링고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외워 두었습니다. 완전히 알아듣지는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덜 당황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할 때에도 간단한 회화를 외워 사용하면 환하게 웃어 주시는 분들이 많아 여행이 한층 더 즐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5. 기타 유용한 정보

Faculty of Humanities는 학기 초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환학생들끼리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는데, 그 외의 교류 시간은 따로 없습니다. 처음부터 수업이 겹치는 친구들과 자주 인사하고 이름을 외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A. 의류

A-1. 겨울학기 파견이더라도 다양한 계절의 옷

저는 2023학년도 가을-겨울학기에 파견되었으나 짧은 파견 기간동안 한국의 여름 날씨부터 겨울 날씨까지 다양하게 겪었습니다. 유럽에도 사계절이 있을 뿐더러,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 국가마다 같은 계절에도 날씨가 천차만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계절의 옷을 적절히 챙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11월에도 반팔이 필요하거나 10월에도 패딩과 목도리가 필요한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A-2. 현지에서 옷을 구매해도 되는 경우

제 기준 체코의 스파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옷은 한국에서 입는 무난한 옷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유럽 곳곳에 있는 Primark 브랜드에서는 할인상품 매대가 크게 있어 옷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프라하의 국립박물관 거리에 있는 프라임마크 기준으로 맨투맨과 츄리닝 바지 등을 만원 정도, 반팔을 오천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양말 또한 7묵음에 만원 미만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유럽 내에서 그 외에 자라, C&A 등 다양한 저가 패션 브랜드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평소 편한 옷을 즐겨 입으신다면 굳이 옷을 많이 챙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의는 기장과 허리 둘레 등이 맞지 않을 수 있어 한국에서 챙겨온 것을 주로 입었고, 나머지 의류는 필요할 때마다 구입해 입었습니다.

패션에 관심이 많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옷을 많이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옷을 많이 챙기실 경우 귀국 시 옷을 버리거나 따로 택배를 부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두꺼운 외투도 해외에서 살 수 있지만, 보온성이 좋은 옷은 저렴하게 사기 어렵기 때문에 보온성이 좋은 외투는 한국에서 입던 것을 들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A-3. 히트텍, 수영복

대부분의 옷은 체코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히트텍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히트텍 의류는 부피가 작고 따뜻해 여행 시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여러 겹 입기 좋아 영하 20도의 핀란드 여행에서도 유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겨울에도 따뜻한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었는데, 유럽에 거주하며 관광 등으로 오랜 시간 외부에 있게 되면 체감 추위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또 라디에이터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 실내가 추울 수 있어 감기 걸리기도 쉬우니 히트텍을 챙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겨울에도 온천을 방문하거나 수영장이 있는 숙소를 예약하는 등 수영복을 입을 일이 한 번 정도는 생길 수 있습니다. 외국의 수영복 디자인은 한국에 비해 노출도가 큰 편이고 한국인 체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겨울에는 저렴한 수영복을 파는 매장을 찾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한국에서 저렴하게 구매해 가면 좋겠습니다. 여름에는 자라 등 스파 브랜드에서도 수영복을 판매한다는데, 겨울철에는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프라하에서 겨울에도 래쉬가드형 수영복을 파는 곳은 팔라디움 백화점 옆에 있는 스포츠의류 매장인데, 상의 하나에 6-12만원 정도로 그다지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A-4. 다이소 압축팩

특히 패딩 종류를 챙겨올 때 압축팩에 넣어 진공청소기로 압축하면 부피가 크게 줄어들어 좋습니다. 작은 압축팩은 여행 중 속옷을 따로 챙기기에 좋습니다.

B. 한식

프라하에도 한식당이 몇 군데 있고, 한식 재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판매하는 한인 마트가 있습니다. 추천하는 한인마트는 중심지에 있는 K-FOOD로, 고추장 한 통을 6천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라면도 가장 저렴한 것은 봉지라면 약 1200원, 컵라면 약 2000원으로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웬만한 한식은 구할 수 있으니 꼭 무리해서 사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캐리어에 남는 공간이 있다면 한식을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환 초기에는 신경 쓸 일이 많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듣느라 바쁘기 때문에 챙겨온 한식을 간단하게 조리해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음식은 교환 기간 중 먹어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귀국할 때 짐을 줄일 수 있어 좋습니다.

추천하는 한식은 불력국입니다. 물만 부으면 몇 분 만에 국을 만들 수 있어 특히 추운 겨울철에 든든합니다. 외에도 참깨라면, 비빔면 등 해외에서 구하기 어려운 좋아하는 라면 종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빔면이나 로제 불닭은 가끔 볼 수 있었는데 참깨라면은 못 봤습니다.

쇠 젓가락은 파는 곳을 찾기 어려우니 쓰던 것을 챙겨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K-FOOD에서 쇠 젓가락을 팔기도 합니다.

C. 접이식 전기 포트

겨울철에 전기 포트가 있으면 따뜻한 물을 끓여먹기도 좋고, 피곤할 때 컵라면 끓이기도 편합니다. 현지에서 전기 포트를 사면 짐이 되거나 버리기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접이식 전기 포트를 챙겨가서 학기 내내 잘 썼습니다.

D. 압박 스타킹, 전기 매트 또는 방석 등

저는 챙겨가지 않았지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았던 물건입니다. 오래 걸거나 비행기를 타다 보면 다리가 붓고 아프기 쉽습니다.

E. 가져갔지만 후회한 물건

저에게는 카메라가 의외로 후회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소매치기 걱정과 짐 무게의 부담으로 여행 중 들고 다니기 어려웠고, 휴대폰 카메라의 화질이 좋아 휴대폰 카메라를 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평소 카메라에 익숙한 편인지 고민하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체코는 유럽 내 국가 중에서도 매우 물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외식 물가는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한국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특히 유로가 아닌 자국 통화인 코루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유로에 비해 환율이 더 좋은 편입니다. 교환 기간 중 유로가 1460원대로 자주 치솟아 유로 사용 국가 여행 시 물가가 저렴한 나라에서도 부담을 느꼈는데 체코 코루나의 경우 비교적 환율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함께 교환간 친구와 장을 봐서 식사를 해결할 때가 많았는데 한 끼에 오천원 정도로 저렴하게 해결했습니다.

제가 교환을 간 시기에는 돼지고기 목살 500g 약 6000원, 할인하는 파스타 면 약 1200원, 할인하는 파스타 소스 약 2000원, 양파 1kg 약 1200원으로 저렴한 편이었고,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면 개당 120원정도 하는 마트 빵도 즐겨 먹었습니다.

외식 물가의 경우 대부분의 식당에서 맥주는 한 잔에 약 3000원대, 메인 요리 하나당 20000원 미만이었습니다. 팁을 요구하는 식당과 요구하지 않는 식당이 반반 정도였는데, 현지인에게는 팁을 요구하지 않는 식당도 있었습니다.

카페의 경우 특이하게 스타벅스의 음료 가격이 다른 카페에 비해 비쌉니다. 시즌 메뉴의 경우 톨 사이즈 한 잔이 약 7500원이었습니다. 저렴한 카페의 음료 가격은 60코루나(3600원) 정도 인스타감성 카페의 음료 가격은 90코루나(5400원) 정도입니다. 음료 양이 적은 카페가 많습니다.

프라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마트의 종류는 Peny, Lidl, Albert, Billa, Tesco 등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가격은 비슷한 정도이고, 위치마다 품목마다 같은 브랜드라도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처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파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팔라디움 백화점 지하에 있는 Albert를 자주 이용했는데, 크기는 작지만 늘 야채와 과일이 신선한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발은 단일 브랜드 매장보다는 여러 브랜드의 신발을 같이 파는 형태의 매장이 많았습니다. 가격은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의류는 위에 적었듯이 Primark 매장이 매우 저렴합니다. 의류 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기타 잡화류도 다양하게 팔고 있습니다.

Rossmann과 DM은 우리나라의 올리브영같은 느낌의 매장인데, 영양제와 화장품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저는 Rossmann에서 2만원 정도에 여행용 드라이기를 구입했습니다. 한국의 다이소처럼 여러 잡화를 한 군데에서 저렴하게 파는 곳으로는 Pepco가 있습니다. Primark의 잡화와 Pepco의 잡화는 비슷한 가격대였고, Pepco의 종류가 더 다양합니다. 덴마크 브랜드인 flying tiger의 경우에도 여러 군데에 매장이 있는데, 한국의 아트박스같은 느낌입니다. 다이소처럼 1000원대에 판매하는 물건은 많지 않으니 부피가 작은 거울,빗,노트 등은 한국에서 챙겨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코의 거울과 노트는 3-4000원 정도인 것이 많았는데 같은 가격으로 한국에서 더 질이 좋은 것을 챙겨올 수 있습니다.

주방용품을 대량으로 마련하실 예정이라면 프라하 시내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이케아를 방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만 원 이하의 프라이팬이나 냄비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의치

않다면 Pepco에서도 저렴한 주방용품을 판매합니다.

블로그를 통해 이전 학기 교환학생에게 연락해 버리는 물건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A. 교통

공항 택시는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정말 비쌉니다. 짐이 많다면 볼트나 우버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항 택시를 탔을 때 공항에서 기숙사까지 차로 20분 거리에 8만원을 지불했습니다.

ISIC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학생 교통권 3개월권을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체코의 일반 성인 교통권은 30분에 30코루나(약 1800원), 1일권이 180코루나(약 1만원)인데, ISIC카드 인증을 통해 학생 교통권을 발급받는 경우 3개월에 360코루나(약 2만원) 1개월에 130코루나(약 7천원)입니다. 성인 1일 교통권보다 학생 1개월 교통권이 더 저렴하니, 꼭 학생 교통권을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초록색 pid 앱을 통해 체코 교통패스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학생 교통권을 발급하시려면 개인 정보에 ISIC카드를 등록하시고, 패스를 선택하여 발급하면 됩니다. 구간은 Praha 0을 선택하면 프라하 내 이동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B. 통신

체코에도 여러 개의 통신사가 있는데 저는 그 중 Vodafone 통신사를 이용했습니다. 다른 통신사에 비해 교환학생들의 정보 글이 많고 접근성이 좋은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ISIC카드와 여권을 챙겨 가까운 매장에서 학생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학생 데이터 무제한 할인 요금은 1개월에 487코루나, 657코루나, 857코루나 옵션이 있습니다. 세 요금제 모두 데이터는 무제한이지만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2000코루나이며, 3개월 요금납부 이후 한국 계좌로 반환 받거나 다음 달 요금으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중간 단계인 657코루나(약 37000원) 요금제를 사용했고 인터넷 사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유럽 지역 내에서 달에 70기가 무료 로밍이 되므로 여행 중 사용하기에도 좋았습니다. 단 스위스 등 일부 국가는 무료 로밍 국가에서 제외되니 여행 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스위스에서 실수로 문자를 보내서 만원 가량이 청구되었습니다.

매달 요금 납부일에 문자 안내가 오고, ATM을 이용해 요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체코 계좌와 카드가 있다면 인터넷 결제로 요금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 식당

17 listopadu 기숙사 지하에는 학생 식당이 있습니다. 체코식 위주이며 가격은 저렴하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만 운영했기 때문에 이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Faculty of Humanities 건물에도 학생식당이 있으나 맛이 별로라고 합니다.

프라하는 외식 물가가 타 유럽국에 비해 저렴합니다. 특히 맥주 가격과 물 가격이 같으니 맥주를 좋아하신다면 외식이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으시더라도 숙취해소제를 여러 개 챙겨 오셔서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체코 전통 음식인 꿀레뇨, 치즈 튀김, 체코식 굴라쉬, 쇠고기 타르타르, 체코 만두 빵 (*houškový knedlík*, dumpling bread), 체코식 오픈 샌드위치 흘레비츠키를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습니다.

젤라또의 본고장은 로마지만, 프라하에도 괜찮은 젤라또 카페들이 있습니다. *creame de la creame*과 *Angelato*를 추천합니다. 스몰사이즈 콘 59코루나(약 3500원)에 두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피스타치오 맛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교환학생 생활 중 여행을 자주 다니게 되실 텐데, 체코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에 어디로든 이동이 편리합니다.

긴 기간 동안 자주 여행을 다니면서 몇 가지 생각해두면 좋을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계절과 날씨를 충분히 고려하기.

여행에 있어 날씨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다고 느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더라도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즉흥적으로 여행 국가를 정할 경우 날씨가 좋은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여행을 즉흥적으로 떠난 경우가 많아 여행 기간의 날씨를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필 계획한 여행 기간 중 날씨가 좋지 않은 국가를 방문했던 것이 아쉬운 경험으로 남습니다. 당장 다음 주의 날씨를 확인하고도 여행을 떠날 수 있다는 점이 교환학생 기간 중 여행의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국가마다 계절에 따른 즐길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실 때 계절도 고려하시면 더 즐거운 경험을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경우 겨울 스포츠를 즐기지 않는다면 겨울에 방문 시 여름에 비해 즐길 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더위를 많이 타는 분이라면 여름에 방문 시 여행 기간이 힘들 수 있습니다. 저는 비교적 온화했던 교환기간 초에 북유럽을 가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체코의 스카이다이빙은 다른 국가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스카이다이빙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추운 계절이 오기 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옥토버 페스트, 체코의 맥주 축제 등 국가마다 특별한 행사가 있는 기간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B. 각종 학생 할인 혜택을 챙기기

Charles University의 ESN카드는 프라하의 UK point에서 300코루나(약 만팔천원)을 내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카드로 다양한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여행 시 가장 큰 혜택

은 라이언에어 10퍼센트 할인 및 무료 수하물 추가 4회입니다. 교환학생 기간 중 저가항공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저가항공을 이용하면 수하물 추가 비용이 비행기 표 값과 비슷합니다. ESN에서 주최하는 근교 여행 행사 등도 카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를 만나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각종 활동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ESN카드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Faculty of Humanities에서는 교환학생들에게 따로 동아리 종류 등에 대한 안내가 없었습니다. 따로 Buddy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나, 불성실한 버디와 매칭되면 거의 교류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SN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라이언에어 등의 교통 혜택을 이용한다면 카드 값보다 훨씬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ESN카드를 통한 라이언에어 할인 예약은 여행일 28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ISIC카드로도 유럽 내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발급한 ISIC카드가 있었지만, 일부 국가의 학생 할인 혜택은 유럽 학생 위주인 경우가 있어 Charles University가 표기된 유럽 ISIC을 새로 발급받았습니다. 발급 비용은 320코루나로 약 만팔천원입니다. ISIC 앱을 설치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체코를 포함한 유럽 내 관광지에서는 웬만하면 ISIC을 통한 학생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항상 안내 데스크에 여쭙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유럽 거주민에게만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여권의 비자 페이지가 인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미술관과 박물관에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C. 안대, 귀마개, 목 베개 등등 챙기기

야간 열차나 호스텔 등을 이용할 때는 안대와 귀마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자리에 예민한 편이라 안대와 귀마개를 유용하게 썼습니다. 공항 노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비행기를 탈 때보다 노숙할 때 목 베개를 더 유용하게 썼습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체코는 총기 허용 국가입니다. 교환 기간 중 파견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개인이 예방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으며, 희생자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체코 비자 신청 시 <https://www.pvzp.cz/>의 학생 보험이 필수입니다.

저는 다행히 안전하게 귀국했지만, 어느 국가에 방문하게 되더라도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시 신청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내역을 확인하시고 보험증을 잘 소지하시길 바랍니다.

해외에서 다치시는 경우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을 찾는 등 치료를 받는 과정이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증 발급을 누락하여 체코 현지에서 메일로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도 2주 가량이 걸려 한동안 보험증 없이 생활했습니다. 출국 전 한국에서 보험증을 받아 오시면 좋겠습니다.

프라하는 관광객이 몰리는 천문시계 앞 정도를 제외하면 소매치기가 없는 편이고, 대중교통도 새벽까지 운행합니다. 관광객 대상 치안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좋습니다.

유럽 여행 중 밤늦게 돌아다니는 일이 많았는데 크게 위협적인 일은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늦은 밤 취객이 동양인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경우 인종차별 및 성희롱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짜고짜 지나가는 사람에게 "I love you baby!"라고 소리지르거나, 길을 묻는 것처럼 다가와서 인종차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숙소까지 따라오려고 한 적도 있기 때문에 밤늦게 취객을 마주친다면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체코는 생각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식민지배를 당하고 자신들의 땅을 빼앗겼던 역사에서부터 문학 작품까지 다양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통해 한국과 체코 사이의 공통점을 지나 세계가 가지는 보편적인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시로, 체코 문학 번역 세미나 수업 시간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체코의 민간 설화를 바탕으로 한 K.J.Erben의 시를 읽고 수업을 했을 때, 어린이를 납치하는 체코의 도깨비 괴물 "Vodnik"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가에 간 어린 소녀를 납치하는 초록색의 물 도깨비에 대한 시가 그 날의 토론 주제였습니다. 이 이야기에 체코 학생이 "불쌍한 체코 어린이들을 끔찍한 공포,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견을 냈을 때, 강의실 전체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그것이 체코의 특별한 문화라 생각해 웃음이 터졌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한국에도 "망태 할아버지" 같은 어린이를 겁주는 민간 전승 속 괴물이 있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저의 웃음은 공감에서 나온 웃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설화가 세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멀고 낯설게만 느껴졌던 해외가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 이후 프라하를 관광하다 좁은 물가에서 Vodnik처럼 생긴 초록 도깨비 동상을 발견했습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체코에서 발견한 체코다운 이스터에그가 매우 반가웠습니다.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다운 한국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문화 속의 다름과 같음이 주는 매력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작업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외에서 문화와 언어의 차이로 정보를 얻고 체험하기 불편했던 경험도 많았습니다. 교환학생 기간동안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고 직접 경험한 내용을 정리해 개인 블로그에 게시했을 때, 많은 분들이 댓글로 감사 인사를 전해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해외의 정보를 얻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환학생 이후에도 이런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부족한 언어 실력으로도 웃으며 소통하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다양한 사람과 만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지만,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안전 지대에서 벗어나 홀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작은 노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나 흥미롭게 여기는 것 등 몰랐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서울대학교, Charles University 그리고 국제협력본부에 감사드립니다.

위의 내용으로 본부 해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2024년 2월 19일

지원자* 서명 필수 안P 진 (인)

*위 목차를 참고하여 자유롭게 구성 가능 (파란색 상세 목차는 예시로, 작성자에 따라 변경 가능)